

## 大學의 教授文化

金 仁 會

(延世大 教育學科)

## 1. 教授文化는 있는가?

우리나라의 대학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말을 할 때에 그 원인의 분석과 진단은 물론이고 처방과 대책까지도 일사천리로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단골로 찾는 대상은 바로 대학 교수라고 하는 이른바 사제의 권위자이거나 전문가 집단이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에 이름이 몇 번 오른 교수들은 집에서나 연구실에서나 느닷없는 전화를 받게 될 적이 자주 생긴다. 신문사나 잡지사 또는 방송국 같은 언론 매체들로부터 걸려 온 전화가 이런저런 문제를 다루려 하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몇 마디 소견을 말해달라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원인과 대책을 몇 마디로 요약해 달라는 식의 요구가 전화 수화기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 부터 천연덕스럽게 들려오는 것이다. 더 심한 경우에는 느닷없이 녹음기나 비디오 카메라를 돌려매고 연구실이나 강의실을 찾아드는 모습도 요즘 대학에서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대중 매체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무슨 연구소나 공공 단체나 정부 기관이니 하는 곳들에서도 걸핏하면 대학 교수를 찾거나 들먹인다. 교수 중에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강의실이나 연구실보다는 학교 밖의 기관들 중 비교적 예산을 풍성풍성하게 쓰는 몇 곳과 단골 관계를 맺

는 데에 더 정신을 쏟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인 모양이다. 연구나 사회 봉사나 현실 참여가 다 교수가 맡아야 할 과업에 속하는 것이라는 이론이 있고 보면 밖으로부터의 요청이 많이 오는 것은 그만큼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일 터이니, 용한 의사나 점쟁이에게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상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논리가 아주 잘못된 것도 아니다.

교수가 자기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일에 대해 자문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교수의 역할일 것이다. 문제로 삼을 아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왜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응하고 하는 현상을 못마땅해 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문장을 전개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30년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의 세상에서는 사회 안의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도 한두 가지 시각이나 방법, 이론에 의해 명쾌하게 정리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과 관련되는 이유다. 인문·사회 과학은 물론이고 자연과학에서조차도 오늘날에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고정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하나의 사실이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적 관계 현

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과학자나 관찰자 또한 그 현상 속의 한 부분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과학적 엄밀성이나 전문성 같은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벌써 낡은 과학적 태도라는 점을 사회과학자들보다도 자연과학자들이 오히려 더욱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간들의 모임인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일에서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어느 한두 전문가의 입을 통해 특정한 사회 문제나 현상에 대한 진단과 원인 분석은 물론 처방과 대책까지 듣기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단세포적 단순 사고의 반응이고 비과학적 자세일 것이다.

아무리 권위있고 유명한 교수라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대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도 없거니와 한두 분야의 시각만으로 관찰되고 분석될 수 있을 만큼 오늘의 우리나라 대학 문제가 단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단편적인 대답이나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상은 교수들밖에 없는 모양이니 미상불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현상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두번째 이유는 바로 이 글의 주제인 敎授文化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 중 상당 부분은 대학 교수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정치 현실, 학생들, 사회 변화, 대학 경영자들, 문교 당국, 현대 문명과 과학 등등의 관련 변인들이 거론되어 왔고 또 그런 거론이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겪고 있는 진통이나 어려움과 관련되는 복합적 원인들 중에서 대학 교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진단에서는 교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접근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수 문화에 대해서는 논의를 회피해 왔다고 할 정도로 대학가에서는 교수 문화란 생소한 개념이다. 과연 한국의 대학 문화 속에서 교수 문화라고 하는 하위 문화가 존재했는가 의심될 정도이다. 한국 대학의 전

통과 관련되는 교수 문화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의문부터가 사실은 꽤나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일 성싶다. 과연 한국에는 교수 문화가 있는가? 있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문화의 의미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학습되고 공유되는 행동과 그 결과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고, 더 간단하게는 '집단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교수 문화'라고 할 때에는 교수라는 특정 직업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관습·사고·생활 방식·가치관·의식 구조 같은 넓은 의미에서의 행위의 공통성과 그런 행위들의 결과, 이를테면 유형·무형의 업적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 성싶다.

물론 좁은 의미로는 교수의 '문화 생활'이라고 할 때에 일반 대중보다는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요즘같이 계층의 이동 속도가 빠르고 물질 문명과 문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놀라운 시대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문화인이나 문화 생활이니 하는 개념을 개화기적이나 통용되던 선진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특수 집단이나 상류층 생활로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 같다. 실제로 오늘의 현실에서는 다른 집단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문화를 즐기는 교수를 찾아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교수 문화는 있는가?

## 2. 敎授는 文化人일까?

문화라는 말을 앞에서 정의한 대로 집단의 공통되는 생활 방식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 교수라는 집단에는 어떤 공통된 생활 방식이 있는가를 묻게 된다. 3만여 명의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 사이에 어떤 문화적 공통성이 존재하는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교수들 간의 공통성이 과연 무엇일까 의심될 때가 자주 있다. 다른 전문 직업인들의 사회에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집단 나름의 문화적 공통성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은 예가 얼마든지 있다.

군사문화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런 예의 하나일 것이다. 어느 특정 전문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행동 양식이나 가치 기준 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알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집단 또는 직업의 문화라고 한다. 의사, 법조인, 판료, 경찰, 예술가, 체육인 등에게서 그런 문화적 동질성을 쉽사리 느낄 수 있다. 또, 그런 경우 대개는 그러한 문화적 동질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교수라는 직업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동질성은 어떤 것인가?

일본의 경우 교수의 문화적 동질성은 외국인의 눈에도 비교적 쉽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경도대학, 동경대학, 쓰쿠바대학 등이 각각 학문 연구의 성향, 대학의 시설과 환경, 분위기 등에서 전혀 다른 개성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에게서는 공통된 무엇을 쉽사리 발견할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명문 대학 교수들은 거의 예외없이 한여름에도 긴 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단정히 맨 정장 차림을 하고 지낸다. 겨울철이어서도 상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대화나 토론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특기나 취미를 갖고 있다. 전공 분야 이외에도 자기네 문화적 전통과 관련된 어떤 분야에 깊이 통달해 있다. 한달 가량의 짧은 기간이고,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들에 대한 관찰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눈으로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던 저들 문화의 몇 가지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교수들에게도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어떤 문화적 공통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적이 자주 있지만 아직은 찾아내지 못했다. 대학의 역사가 워낙 짧기에 아직 교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대학 교수라는 직업의 역사야 짧을지언정, 학문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선비 문화의 역사는 천년도 넘는 우리나라가 아니던가? 교수는 말하자면 오늘의 시대에서 선비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수 사회에서는 선비 문화라고 불려도 좋을 어떤 공통성이 있을까를 궁리해 보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차림새에서는 물론이고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서, 심지어

어는 사용하는 말의 품위와 정확성에 있어서까지도 교수 사회의 공통된 동질성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언론이나 대중 매체가 한국의 교수라는 말을 할 때에 걸핏하면 4·19 당시 교수단의 시위를 들먹이거나, 무슨 무슨 정치적 사태에서 서명한 교수들의 집단 행동을 거론하면서 마치 한국 교수의 문화적 동질성이나 표상 같은 것이 있는 양 미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런 내용을 곧 한국 교수의 특징이나 성향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좀 안 된 표현이 되겠지만 한국 교수 사회에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 교수 일반에게 공통되는 어떤 종류의 문화가 있다는 뜻이 아닐 것이다. 다른 어떤 전문직 집단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문화적 다양성 내지는 이질성의 공존이야말로 한국 교수 문화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성싶다. 짐작게 표현하면 문화적 다양성이니 이질성이겠지만, 좀더 솔직한 표현을 쓴다면 교수 문화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이 말은 또한 교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어떤 공통성들이 존재하는지 말하기 힘들다는 소리다. 교수 문화라고 할 때에 그 범주 속에 포함될 법한 내용들의 대부분에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된다. 외국의 교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수 문화의 당연한 철칙이 우리의 교수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유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논문이나 저서에서의 표절 시비가 그 하나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내는 교수와 남의 책이나 논문을 태연히 표절한 업적을 내는 교수가 같은 대학에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학가 교수 문화의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선비 문화의 전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아마도 학문을 대하는 준엄한 기상과 세상을 대하는 처신에서의 절의와 엄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교수 문화에서는 조선조 선비 사회에서 당연시 되어 왔던 학문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준엄함이나 고고한 기상 같은 것이 아주 멸절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연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라는 직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학문 연구일

터인데, 교수 사회에서 학문과 관련되는 문화적 동질성은 찾아지기 어렵고, 오히려 최고 수준에서부터 언어도단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수준의 학문적 태도와 습성이 공존한다면 일단 교수 문화의 본령에 대해 운위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교수라는 직업의 두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젊은이들을 가르쳐 이끄는 일이다. 학문이나 기능에서만이 아니라 인성관·가치관·교양 같은 삶의 전체성에 있어서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끊임 없이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수 문화의 범주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문자 그대로 문화적 교양과 인격적 기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교양과 기품에서 압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전공 분야 이외의 교양 분야에서도 학생보다 무식해서는 곤란하다. 예의 범절이나 말씨나 마음 씀씀이, 행동 등을 통해 풍기는 인격과 기품이 학생들에게 업수히 여김을 받을 정도가 되어서도 아니된다. 인생을 관조하는 안목과 젊은이를 이해하는 도량에 있어서 최소한 학생들보다 한 단계 높아야 한다. 꼭 문학·음악·미술·종교 등에 대한 폭 넓은 교양과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 정초에 세배하러 집에 찾아 온 학생들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방석과 화투를 꺼내 놓고 함께 노는 것을 부끄럽게 느낄 줄도 모르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말아야 교수의 교양이나 문화를 논의할 수 있을 줄 안다. 학생들과 여행을 가서도 교수들끼리 고스톱으로 밤을 새우는 수준의 무교양이 교수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수라는 직업에 요구되는 세번째 중요한 특징은 아마도 도덕적 엄격성 내지는 자기 통제 의 규범성이 아닐까 싶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전문적 자질과 능력만이 교수에게 요구되는 평가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독일,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는 교수의 인격 전체를 그의 학문적 비중과 함께 평가하는 것 같다. 인격 전체란 바로 인간성·도덕성 등의 사표로서의 됨됨이 전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우리의 문화적 전통

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었다. 스승이라는 말 속에는 학문 못지않게 인격적·도덕적 비중이 강조되어 있었다. 교육이란 원래가 도덕성을 기초로 하고서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도덕성이 결여된 채 지식이나 기능의 전수만을 능사로 삼는 교육이라면 그것은 혼련이거나 학습일 수는 있어도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의 교육의 전통이었다. 비단 선비 사회의 교육에서만이 아니라 장인들의 직업적 기능 훈련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지식이나 기술의 비법보다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인격적 성숙성을 더 중요시 했다. 심지어 천민 중의 천민 취급을 받아 온 무당이나 백정들의 도제 교육에서도 그러했었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도덕적 엄격성이나 규범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수 문화에는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일관성이나 정체성이 존재하는가 의심될 때가 자주 있다.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 또는 교수 사회 안의 인간적 갈등 같은 문제 영역들에서의 도덕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어느 사회에서나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윤리적 규범에서의 도덕성조차 쉽사리 무너지게 하고서도 태연해 하는 경우를 어렵잖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수와 교수 사이에 주먹다짐이, 심지어는 칼부림까지도 벌어지는 예가 없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만 있을 뿐 과연 교수 일반이 이런 일들을 얼마나 교수 사회의 수치로 여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심지어 특정 교수의 성 윤리나 금전과 관련된 것은 추문이 학생들 간의 소문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로 드러나는 예가 없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요즘 대학가의 전통 중 일부 학생들이 재단과 경영진들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유행처럼 된 것이나, 교수의 머리를 삭발하고 연구실은 물론 총장실까지도 때려 부수는 것을 마치 장한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어 버린 것 등이 하루 이틀 사이에 별안간 생겨난 대학 문화의 변화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성싶다. 교수 사회 일각에서 소수에 의해 벌어져 온 도덕적 파렴치 행위의 문화적 영향이 누적된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 3. 教授의 文化的 責任

대학 문화가 건강하게 자리잡히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안정이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학 문화가 건강할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교수 문화의 정착만이 그 대답의 전부라고 할 수는 물론 없지만, 최소한 교수 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대학 문화도 자리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교수 문화의 정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의 짧은 대학 역사를 가지고 정착된 교수 문화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무리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대학 교수들 중 이른바 원로급에 속하는 연령층들 대부분은 애당초 학자나 교수로 입신하려는 청운의 뜻을 품고 도전했던 분들이 아니다. 광복과 전란, 사회적 상황과 대학의 급속한 변천 과정에서 요새 학생들의 유행어처럼 얼떨결에 어찌다 보니 교수가 된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니 교수로서의 규범과 학문적 자세, 삶의 철학 같은 것을 배울 기회도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명실공히 대학의 사표 노릇을 해 온 몇몇 예외적인 스승들이 없지 않았고 그런 몇몇 분들로 인해서 그나마 대학의 권위와 전통이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지만, 워낙 그 수가 적고 보니 아직껏 우리의 대학가에 교수 문화라는 것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는 없었다고 본다. 잡초의 뿌리가 훨씬 더 왕성하게 퍼졌기 때문이리라. 게다가 중견급 연령층의 교수들 중에도 교수 문화를 건강하지 못한 이상한 방향으로 꾸며가는 데에 기여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 같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공서에서 일반적 관료 노릇을 하던 사람이 어엿한 대학 교수가 되어 활동하는 예가 흔해졌다. 그게 뭐가 나쁘냐, 자격과 능력이 있으

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물론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 중 유능하고 훌륭한 교수가 적잖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몇 백 년씩의 대학 역사를 지닌 나라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누구라도 마음만 바뀐다고 몇 년만 노력하면 교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한국 대학의 교수 문화가 아무래도 정확이 덜된 뜨내기들의 문화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형편이니 대학의 교수 문화를 운위하는 것이 아직은 이르달 수밖에 없겠다. 근래에는 특수층 자녀 출신 교수 후보생들이 늘고 있다. 외국의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증은 집안 자제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물론 개중에는 탁월한 자질과 인품을 지닌 우수한 젊은 학자들이 적잖게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젊은 세대의 학자들 속에는 부모의 배경이나 후원 없이 자력으로 성장한 수재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오늘의 20대, 30대 교수들 및 교수 후보생들의 사회에서부터는 어떠한 교수 문화가 뿌리를 내릴 것인가이다. 그것은 저들 세대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기실 우리나라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르는 대학가 전체의 심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학가에서 젊은 세대의 교수들이 지니는 문화적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종류와 성격의 교수 문화가 정착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최소한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 문화가 세월의 진행과 더불어서 점점 정착되어 갈 것만은 분명한 일이다. 기대하건대 앞에서 논의된 세 가지만은 우리나라 교수 문화의 특징으로 뿌리 내려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학문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준엄함과 고고한 기상, 둘째로 풍부한 문화적 교양과 인격적 기품, 셋째로 도덕적 엄격성과 자기 통제의 규범 등이다. \*